

# 믿음으로 죽이 맞는 부부

A Couple United in Faith

로마서 16:3-5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4월 7일 설교

<sup>3</sup>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sup>4</sup>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sup>5</sup>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 죽이 잘 맞는 부부

성경에 보면 죽이 잘 맞는 부부가 여럿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인 아담 하와부터 그랬습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 3:6). 된다 안 된다 다투지도 않고, ‘여보 먼저 당신 먼저’ 사이 좋게 참 잘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왕 아합도 왕비 이세벨하고 그렇게 죽이 맞았습니다. “(아합이)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왕상 16:31). 우상 섬기는 사람을 아내로 맞았는데 둘이 죽이 잘 맞아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신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겠지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행 5:1-2).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부부가 의논해 재산을 팔았는데 다 내기는 아까워 일부를 숨겼습니다. 판 것도 같이, 숨기는 것도 같이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꾸중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행 5:9)

살다 보면 ‘저 집은 싸우려고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다투기만 하는 부부도 많은데 부부가 이렇게 죽이 잘 맞으니 우선은 참 좋아 보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 잘 맞아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복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아담 하와도 아합 이세벨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 죄 짓는 쪽으로 죽이 잘 맞아 같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같이 망하고 말 거라면 차라리 날마다 티격태격 싸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안 싸운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좋은 쪽으로 죽이 잘 맞은 부부는 그럼 없습니까? 있지요. 좀 드물긴 하지만 없진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내 사라도 늙어 단산했지만 역시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다시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죽이 잘 맞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아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히 11:8-16).

## 브리스길라 아굴라

신약에도 하나 있지요? 오늘 살펴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보통 부부를 말할 때는 남편이 먼저, 그 다음 아내가 나옵니다. 양성평등이 많이 이루어진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남자를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이름이 나란히 나오는 게 다섯 번인데 한 번만 빼고는 다 여자가 먼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모든 일에 여자가 리더였다는 말입니다. 이천년 전 이야깁니다. 남자 분들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고도 하는데 어디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라 했습니다. 본도는 지금의 터키 북동쪽 흑해 연안지역을 가리킵니다. 본도는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 지역에서 모여온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거기 본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행 2:9). 그 사람들을 통해 본도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벧전 1:1). 아굴라도 그 가운데 하나였지요.

두 사람이 언제 결혼해 어디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는 이탈리아의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키는 바람에 이탈리아를 떠나 고린도에 와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을 추방한 건 유대인끼리 자주 싸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유대인과 전도를 방해하고 박해하는 유대인 사이의 싸움이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유대인들과 충돌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 바울의 동역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선교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고린도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대인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두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이 때쯤 이미 가졌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을 만난 걸 계기로 로마 전도의 꿈을 꾸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만나고 보니 같이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마침 직업도 같습니다. 이동식 텐트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도 같이 하고 전도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난 순간부터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한 해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부부도 같이 했습니다. 말씀은 주로 바울이 전했으니까 이들은 일을 해 돈도 벌고 밥하고 빨래하고 뭐 그런 일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고린도교회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뿐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까지 함께 일해 설립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고전 16:19).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마친 다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함께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잠시 복음을 전한 다음 안디옥에는 바울 혼자만 가기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에베소에 계속 머물게 했습니다. 디모데하고 실라는 바울하고 같이 안디옥으로 갔는지 아니면 에베소에 계속 남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에베소에서 뭘 했겠습니까? 전도했지요.

바울이 얼마 뒤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보니 벌써 교회가 생겼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전 16:19). 바울도 지난 번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다시 와서도 삼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돌보았지만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 아볼로를 가르침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운 일 말고 이 부부에 대해 기억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을 잘 가르쳤습니다. 헛갈리면 안 됩니다. 남편 이름은 아굴라고 이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공부도 많이 하고 구약성경에도 해박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들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오실 거라고 요한이 전한 그 분을 믿고 전했지만 그 예수께서 정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고 이후에 성령까지 보내신 건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용기는 있어서 회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추측입니다. 요한이 전한 메시아가 오셨다 하더라. 그 분을 믿어야 된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들어보니 말은 맞는데 핵심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아볼로가 누굽니까? 뛰어난 학자입니다. 성경박사입니다. 그런 아볼로를 그냥 제자로 삼아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학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성경 박사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요한이 예언하던 그 예수께서 성경이 예언한 십자가와 부활을 다 이루시고 역시 성경이 약속한 성령까지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아볼로도 참 대단하지요. 보통 아볼로 정도 되면 배우는 건 끝입니다. 가르치려고만 하지요. 그런데 아볼로는 저보다 공부도 별로 못한 두 사람을 따라가서 배웠습니다. 어쩌면 저도 뭔가 답답했을 겁니다. 예수가 오셨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 분이 오셔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몰랐으니 답답했겠지요. 그래서 귀담아 들었고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 아볼로의 사역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말씀을 배우고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답답하던 게 확 풀렸으니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얼른 전해야 되겠는데 고린도로 가서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왜 고린도였는지 이유는 모르니까. 하여간 고린도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한이 먼저 와 전한 그 분,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사람은 고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다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그런 다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그리고는 하늘로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분,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하고 전했습니다.

안 믿는 유대인들이 반박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이나?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 아볼로가 누굽니까? 성경박사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십자가를 예언한 거고, 저기 저 말씀은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고, 성령을 주신 일은 성경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하면서 성경을 갖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을 하니 안 믿는 사람들이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불로만큼 알아야 말이지요.

그래서 고린도 온 교회가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생겼을 때 바울파, 베드로파 말고 아볼로파가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요? 말씀 가르친 게 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성경으로 멋지게 설명해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랬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고전 3:6). 물을 잘 줘 잘 자랐는데 그렇게 물을 줄 수 있도록 아볼로를 진리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 로마 교회에서

그런데 처음 고린도에서 또 나중에는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오래 일했던 두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다시 로마에 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써 보낸 편지 로마서 끝부분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얼마 전까지 에베소에 있던 이들이 로마에는 왜 가 있을까요? 성경이 직접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과 당시 정황을 살펴볼 때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 미리 파견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에도 로마에 살았던 이들입니다. 바울은 두 사람을 동역자라 부릅니다. 고린도랑 에베소에서 같이 일했으니 동역자가 맞지요.

그렇지만 이어지는 말을 보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이들이 바울과 함께 일할 때 어떤 정성과 각오로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숨겼습니다.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었지만 언제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때문에 큰 소요사태가 발생하자 형제들이 바울을 격리시켜 보호했는데 그 자리에도 두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행 18:6, 12; 19:30-31).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사람의 희생은 바울에게만 유익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바울은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다는 말을 사람에게 꼭 한 번 썼는데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썼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의 충성으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고 에베소에도 교회가 생기고 지금은 로마에서 또 이방인들이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교회 전체가 감사한다 한 거지요.

## 교회에 바친 삶

바울은 두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 주시오 하면서 한 마디를 덧붙입니다.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들은 로마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또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추방을 당할 그 때도 그 집에 교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추방령이 해제되고 다시 로마로 가게 되자 금방 또 집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이 에베소에 있을 때도 집에 교회가 있다 했으니 이들은 어디를 가든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 후에는 바울도 로마로 갑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바울을 환영했는지 그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사실 이 때 이들이 로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써 보낼 때는 로마에 살면서 집을 교회로 만들었는데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서 에베소로 보낸 편지에 보면 언제 갔는지 이들 부부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 있습니다 (딤후 4:19). 언제 무슨 일로 갔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는 로마든 고린도든 에베소든 거리낌 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았고 또 어딜 가서든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도 이사를 가면 물건을 많이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천 년 전이라면 차도 없던 시절이니 이삿짐 나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로마에서 또 에베소로 가는 길은 그냥 이사가 아니고 거의 이민을 가는 수준입니다. 그런 이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했다면 아마도 거의 빈손으로 다녔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점도 있지요. 직업이 장막 만드는 거니까 어딜 가든 잠자리 하나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돌아갈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그렇게 똑같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행적을 보면 주 예수께 바친 삶이 어떤 건지, 특히 부부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긴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사도나 교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재력도 있었지만 어디 이름을 낼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알아주고 편지할 때마다 칭찬도 하고 안부도 물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는데 보니 교회를 세우느라 수고한 사람은 바울과 아볼로 두 사람만 나옵니다. 일은 이 부부도 같이 했지요. 장막을 만들어 재정도 부담하고 다른 잡무도 다 처리했으니 몸은 더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직접 말씀을 가르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은 있어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따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도 그 아볼로를 불러 말씀을 가르친 아볼로의 스승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름이 나온다고 이름을 낸 건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에베소교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세운 다음 바울이 와서 삼년 동안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삼년 동안 이들 부부도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그 교회 장로들을 불러 고별사를 하는데 바울 자신이 수고했다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같이 수고한 두 사람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행 20:33-34). 바울도 물론 일했지요.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전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보면 이들 부부는 말년에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교회를 섬겼겠지요. 이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성경박사를 가르칠 정도로 말씀을 바로 알았으니 그런 헌신도 가능했겠지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본향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 믿음으로 하나 됨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겼다는 점과 함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부부는 죽이 잘 맞되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이 잘 맞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였습니다. 이름도 언제나 둘이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울처럼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했으면 이들과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따금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 나누어지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인은 꿈도 안 꾸는데 남편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합니다. 그 날부터 그 집은 전쟁터입니다. 간다 못 간다,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부부는 하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진짜 선교사로 부르실 때는 배우자도 함께 부르십니다. 안 그러면 그건 진짜 소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데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그러니 같이 가야 됩니다. 죽이 잘 맞아야 됩니다. 죄 짓는 쪽으로 죽이 맞아서 절대 안 되겠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 하면서 서로 의견이 달라 다투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 하지요? 같이 살고 같이 죽습니다. 성경이 뭐라 가르칩니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3:7).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죽이 안 맞아도 안 되고 죄 짓는 일에 죽이 맞으면 더 안 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더욱 잘 믿고 섬기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고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부부와 나

죽이 잘 맞아 죄 잘 지은 부부가 성경에 몇 있다 그랬습니다만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어 그렇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일에는 손발이 척척 맞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무관한 일, 말씀을 어기는 일에는 죽이 잘 맞기 쉽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죽이 잘 맞을 때는 일단 잠깐 멈추고 어느 쪽인지 한 번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아담 부부, 아합 부부, 아나니아 부부를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부부, 그리고 오늘 살펴본 브리스길라 부부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수많은 이웃도 살고 우리 부부도 삽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말씀으로 죽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귀

하게 여겨 멋진 기도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달려가고 가는 곳마다 제 집을 교회로 만든 것처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목까지도 내놓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이름 안 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나그네로 살다 갑니다.

첫 손갈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요. 한 걸음씩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열심 있는 교회생활 가운데 죽이 잘 맞게 연습하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연습하며 사는 게 아브라함 부부처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주님 예비하신 본향 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권수경 목사)